일본의 장묘문화
-그 다양성과 역사성-

高村龍平 *

〈차 례〉

1. 머리말
2. 장식(葬式:소오시키)
3. 현행 장묘문화의 역사적 배경
4. '양묘제'에 대해서
5. 한일간 장묘문화의 차이
6. 맺음말

1. 머리말

일본과 한국은 서로 '조상숭배'(일본어에서는 祖先崇拜)라고 불리는 죽은 자에 관한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다. 거기에는 죽은 자의 연고자가 죽은 자의 이름이나 지위를 계승하면서 죽은 자를 위한 의례를 지내는 책임이 생긴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계승자가 되고 어떤 형식으로 의례를 지내는가에 대해서는 차이점도 많다. 예를 들어, 조상으로부터 자손에게 계승되는 사회적 단위를 일본에서는 '이에'(家)라고 부르는데, '이에'를 계승하는 사람이 원래 타성이었던 양자나 사위일수도 있다.

조상숭배와 연관되는 장례나 묘지에 관해서도 한일간의 차이는 크다. 그러나 일

* 탐라문화연구소 특별연구원

본을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유교 문화권으로 보는 담론이 종종 있는 것을 보면, (최열, 2001:53) 일본 장묘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장묘문화를 소개하면서 그 문화의 특징, 특히 한국과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그런데,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오키나와(沖繩, '류큐(琉球)'라고도 불린다)를 비롯한 일본 남서제도 지방의 장묘문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이 지방에서는 화장 후 문중 사람들을 같이 납골하는 '문중묘'가 있고 그러한 묘를 만들 때 풍수지리를 이용한다고도 한다.(新谷편, 1999) 남서제도 지방의 장묘문화는 본도와 많이 다르지만, 필자는 오키나와 출신도 아니고 오키나와를 조사한 적도 없어 충분히 서술할 수 없다. 북해도(北海道) 지방 원주민인 '아이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하의 발표 내용은 일본 본도 지방에만 한정된다.

2. 장식(葬式:소오시키)

1) 죽음에서 화장까지

현재 일본에서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신문의 사망기사를 1913년부터 1983년까지 10년마다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913년에는 병원에서 사망한 사례가 12.2%이고 자택에서 사망한 것이 80.6%이었다. 그런데 그 비율은 1963년과 73년 사이에 역전되어, 1983년에는 병원이 73.2%, 자택이 23.5%가 되었다. 신문에 사망 기사가 나오는 사람은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사회 일반의 상황과 약간 다르다고 봐야 한다. 후생성의 통계와 비교하면 10년 내지 15년 정도 빠른 시기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한다. '장의'(葬儀:소오기) 또는 '고별식'(告別式:꼬꾸베츠 시키) 등으로 불리는 장례식의 장소는, 1913년에는 자택이 64.2%로 가장 많고, 절 19.4%, '제장'(齊場:사이조오) 즉 장례식장이 8.2%, 각종 회관강당이 1.0% 였다. 1983년에는 자택이 32.9%, 절 37.0%, 장례식장 8.7%, 회관·강당 13.7%가 되었다. 이것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나 죽음에 대처하는 장소가 주거공간으로부터 외부 공간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장송문화연구회, 1993:4-5)

병원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는 일시적으로 병원 영안실에 안치된다. 유가족은 여기서 장의사와 계약해서 장사(葬事) 준비로 들어간다. 영안실에서는 시신을 관에 놓는 작업(納棺)까지 하고, 그 후 시신과 유가족은 고별식 장소로 이동한다.

사람이 죽음을 맞았을 때 그 시신에 관한 풍습은 일본국내에서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죽음 직후에 유가족이나 친지 등이 입술에 물을 준 후 온몸을 닦아준다. 그리고 나서 시신을 위한 의상을 입혀주고, 남자라면 수염을 깎고 여자라면 화장시키는 등 망인 얼굴을 곱게 한다. 시신을 안치하면 하얀 천을 덮고 향·꽃·밥을 옆에 둔다. 승(僧)의 독경을 받고 관에 시신을 놓는다. 관 안에는 꽃이나 망인의 물건을 놓는 경우가 많은데, 화장이 일반화됐으니 화장 작업에 방해가 되는 물건(책, 과일 등)은 삼간다.(장송문화연구회, 1993:14-19, 35-6)

돌아가신 날이나 그 다음날쯤에 '쓰야'(通夜)를 한다. '쓰야'에는 문상객을 받고 스님을 불러 독경한 뒤 문상객들에게 식사 대접('쓰야 부루마이(通夜ぶるまい)')을 한다. 특히 유족의 여자들은 식사 대접하느라 굉장히 바쁘다. '쓰야'의 장소는 고별식과 같은 경우가 많고 제단도 '쓰야' 전에 만들어진다. 그 날 유족은 관을 지키면서 밤을 세운다. '쓰야' 다음날 낮에 고별식을 한다. 고별식에서는 승이 독경을 하고 유족과 문상객들이 향을 올린다. 고별식이 끝나면 유족들은 관을 모시고 화장장으로 간다(出棺, 슈깡). 그 때 관의 뚜껑을 열어 참석자들은 망인과 헤어질 기회를 갖는다. 화장이 끝나면 남은 유골을 유족들이 같이 항아리에 담아서 집에 모셔간다. 유골은 모두 담아놓을 수도 있고 일부분만 담을 수도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화장하기 전에도 승의 독경을 받는다.(山本, 1999-2001)

2) 법사(法事)와 성묘

장식 이후 승을 불러서 지내는 행사를 '법사'(法事:호오지) 또는 '법요'(法要:호오요오)라고 한다. 49일까지는 7일마다 법사를 하는데, 원래 7일째에 질렀던 '초칠일'(初七日, 쇼나노카) 법요는 현재는 화장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지르는 경우가 많다.(山本, 1999-2001) 49일의 법요를 '이미아케'(忌明け)라고 한다. '이미아케'는 상(喪)에 복(服)하는 기간(이미, 忌)이 끝남을 의미한다.

집안의 납골묘가 이미 있는 경우 49일째에 납골을 한다. 납골묘의 형태는 비석 밑에 납골할 공간이 있고, 비석 정면에는 '…家之墓', '…家先祖代代之靈位' 등 성

과 집안을 표시하는 내용이 새겨져 있고, 옆면에 가족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 많다. 위패도 납골 전과 후로 다른 점이 있다. 납골 전에는 칠을 안 하는 나무로 위패를 만들어서 계명을 쓰는데, 이후에는 칠을 한 위패를 모신다. 집안에는 '불단'(佛壇:부쓰당)이라고 해서 선조의 위패를 모시는 상자가 있다. 불단에는 각 선조의 위패와 '…家先祖代代之靈位' 등등의 글자를 새겨서 집안의 선조 모두를 모시는 위패가 있다.

죽은 자의 명복(冥福)을 비는 '츠이젠 호오요오'(追善法要)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중음'(中陰:추우인) - 49일째. '시쥬우꾸니치'(49일)라고도 한다.

'백일기'(百日忌:햐까니치키) - 100일째.

'일주기'(一周忌:잇슈우키) - 만 1년째

'삼회기'(三回忌:상카이키) - 만 2년째

'칠회기'(七回忌:나나카이키) - 만 6년째

'십삼회기'(十三回忌:쥬우상카이키) - 만 12년째

'십칠회기'(十七回忌:쥬우나나카이키) - 만 16년째

'이십삼회기'(二十三回忌:니쥬우상카이키) - 만 22년째

'이십칠회기'(二十七回忌:니쥬우나나카이키) - 만 26년째

'삼십삼회기'(三十三回忌:상쥬우상카이키) - 만 32년째

여기에 만 49년째에 지르는 '오십회기'(五十回忌:고줏카이키)가 더할 수도 있다.

특히 '일주기' 이후의 법요를 '연기법요'(年忌法要)라고 한다. 법요에서는 승의 독경을 받는데, 불교 경전에 근거한 것은 '중음'까지다. 백일기로부터 삼회기까지는 중국불교에서 시작한 것이고 일주기는 소상(小祥)으로, 삼회기는 대상(大祥)으로 해당한다. 칠회기 이후는 일본에서 부가된 것이다.(장송문화연구회, 1993:174-179)

일반적으로 연기법요가 전부 끝나면 '도무라이 아게'(忌いあげ)라고 한다. '도무라이 아게' 이후 죽은 자는 개인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하고 집합적인 '집안의 선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그 때야 묘지에 비석을 세울 수도 있고, 위패를 불단으로 꺼내어 단나사(다음 절에서 설명함)에서 모시게 되는 지역도 있다.(坪井, 1971:35)

매년 '봉'(盆)과 '히강'(彼岸)에는 성묘를 간다. '봉'은 현재 양력 8월 13일부터

16일까지가 일반적이고, '히강'은 춘분 및 추분을 전후하는 7일간이다. '봉'은 한국의 추석과 닮았다. 도시에 나간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 친지와 함께 지내는 기간이다. 한편 신정에도 고향에 찾아가지만 성묘를 하지 않는다. 성묘를 갈 때에는 가족들이 향과 꽃을 올리고 물로 묘를 닦는다. '봉'에는 집의 불단 앞에서 승이 독경하기도 한다.

3. 현행 장묘문화의 역사적 배경

이상 현재 일본에서 사람이 죽은 후 행해지는 여러 행사에 대해 살펴봤다. 그러나 일본 전역에서 같은 절차로 장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도 굉장히 다양한 장사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북 일본에서는 먼저 화장을 한 다음에 '쓰야'와 고별식을 하는 지역이 많다.(山本, 1999-2001)

무엇보다도 화장의 관습도 아주 근대적인 현상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화장률이 98% 정도가 되는데, 다음 장에서 소개하는 필자의 조사(1995년) 중에도 매장된 사례가 있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1900년의 화장률은 29.2%이었는데, 1925년에는 43.2%, 1930년대에 화장률이 50%를 넘어 1975년에는 85.7%, 1993년에는 97.9%로 급상승하고 있다(森, 1999: 141쪽). 에도시대(江戸時代, 1603-1868)까지는 매장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명치시대 이후 정부는 주로 시체로 인한 환경 오염에 대한 대책으로서 매장을 제한하고 화장을 권장했다(森, 1993: 149-151쪽). 그러나 화장은 에도시대부터 우세였던 지역도 있고 보급이 늦어진 지역도 있다. 1925년의 화장률을 보면, 도오쿄오 도(東京都), 오오사카 부(大阪府) 등 도시부나 불교의 한 종파인 정토진종(淨土眞宗)의 세력이 큰 동해안 호꾸리꾸(北陸) 지방에서는 화장률이 75-90%에 이르는데 반해, 동부 일본이나 본주(本州) 중앙부, 서부 지방인 규슈(九州)에서는 11-15%밖에 안 된다. 화장의 보급은 불교 종파의 영향과 도시화의 영향이 있는

1) 일본 불교는 다양한 종파를 가지고 있다. 천대종(天臺宗)이나 진언종(眞言宗) 등 중세 이전부터 있는 종파, 중세 이후 중국에서 들어온 선종(禪宗), 중세의 민중적 불교 개혁 운동 속에 탄생한 정토종(淨土宗) 정토진종(淨土眞宗) 일련종(日蓮宗) 등등이다. 종파에 따라서 모시는 부처도 경전도 다르기 때문에 의례에도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것으로 나타난다.(森, 1999:143)[1]

장묘문화에 대한 불교의 영향력도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일본에서 장사가 불교에 따라서 행해지게 된 지 오래 되었다. 그러나 현재 장묘문화가 정착한 시기는 에도시대이다. 에도시대는 토꾸가와 막부(德川幕府)가 일본을 지배했는데, 막부는 일본 전국(다만, 오키나와와 북해도의 대부분은 일본이 아니었다.)를 번(藩)으로 나누어 영주로 하여금 지배시켰다(幕藩體制). 각 번의 영주는 사람들에게 여러 물건을 상납(上納)시켰는데, 그 최소 단위가 된 것이 '이에(家)'였다. '이에'는 한 가족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며, 대를 이어 영속(永續)되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이에'를 구성했다가 죽은 사람은 그 '이에'의 계승자가 선조로 모시게 되었다.(森, 1993:176-178)

한편, 막부는 천주교와 기독교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이에' 단위로 절에 등록시켰다. 절을 하여금 신도를 교인이 아님을 인정시키는 이 제도를 '데라우케'(寺請)라고 하는데, '데라우케'와 호구조사에 해당하는 '닌베츠 초오'(人別帳)가 합쳐서, 절을 이용해 주민 생활을 관리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출생·상망은 물론이고 결혼과 이혼, 이사 등 이동 사항을 절에서 신고 받게 된 것이다. 그 제도를 '사단(寺檀) 제도' 또는 '단가(檀家) 제도'라고 하고, 관리하는 절을 '단나사'(檀那寺:단나데라), 절에 등록된 '이에'를 '단가'(檀家:단까)라고 한다. 죽은 사람도 '이에' 단위로 기록되고 그 기록을 '과거장'(過去帳)이라고 한다. 단나사의 주지는 장식이나 법요 때 독경을 하고, 사람이 죽으면 과거장에 기록하고, 그 기록에 의해서 단가에서 연기법요를 한다. 이렇게 하여 에도시대 때 서민층까지 불교를 통해서 죽은 사람을 모시고 묘를 만드는 관습이 정착한 것이다.(森岡, 1978:145-146)

일본에서 불교가 장묘문화에 영향을 끼치게 된 과정을 조선시대의 유교 교화 과정과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조선에서는 유교식 예법을 일반인들에게 보급시키면서 유교의 도리를 정착시키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조선시대에는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유교가 조상숭배를 중심으로 한 예법으로 인하여 정착되었다. 그러나 에도 막부는 가족이나 지역사회를 절에서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지배한 것이고,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불교 의례나 교리를 통일시킬 필요는 없었다. 나아가, 한국 유교에서는 자손이 직접 제관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절차를 알아야 제를 치를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의례 절차는 승에게 맡겨놓고 자손들은 합장하고 분향만 하면 된다. 오늘날은 도

시화와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장사를 지르는 경험이 줄어든 사람들은, 장의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 납관 등의 작업을 하기도 한다.(山本, 1999-2001)

한편 불교 쪽에서도 포교를 위해서 일반사람들이 갖고 있던 민속적인 영혼관(靈魂觀)과 타협하기도 하였다. 그 한 예는 비석의 의미와 그 변화이다. 비석은 원래 망인의 명목을 기리기 위해서 부처에게 바친 탑으로 유래하고, 현재도 묘의 비석을 '세키토오' 즉 '석탑'(石塔)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많다. 그러나 현재 비석에는 '이에'나 망인의 이름이 쓰이며 망인이나 조상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따라서 일본 장묘문화는 민속신앙과 불교의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양상(樣相)은 다양하다. 그래서 일본 민속학계에서의 장묘문화에 대한 연구는 불교식 의례의 절차나 의미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민간신앙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러 왔다. 다음 장에서는 필자가 직접 조사한 '양묘제'(兩墓制)의 사례를 소개하겠다.

4. '양묘제'에 대해서

1) 양묘제의 개요

제1장에서도 소개했듯이 현재 일본에서는 비석 밑에 납골공간이 있는 묘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가 일반화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납골묘는 화장의 보급과 더불어 보급된 것이고, 매장이 중심이었던 시기에는 다른 형태가 존재하였다. 양묘제(兩墓制)도 그 중 하나이다. 이하 신타니(新谷尙紀)의 정리(新谷, 1991)에 따라서 양묘제에 대한 기존 논의를 소개하겠다.

양묘제는 시체를 매장하는 장소인 매장지(埋葬地)와 비석을 세우는 장소인 비석건립지(碑石建立地)를 따로 만드는 묘제를 가리킨다. 특히 킨키(近畿)지방을 중심으로 양묘제가 많이 분포한 지역이 있다.

양묘제가 민속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면서, 매장지를 '우매바카'(묻은 무덤), 비석을 '마이리바카'(성묘가는 무덤)라고 부르고 그 양자를 따로 쓰는 것이 양묘제라는 정의(定義)가 공식화되었다. 나아가서 이러한 현상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

키는 일본고유 사상의 표현이라고 생각되었다. 즉, 매장지는 주검으로 인하여 부정을 탄 장소이고, 자손들이 영혼을 모시기 위한 깨끗한 장소를 따로 마련한 것이 비석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신타니에 의하면, 실제 형태 분석 이전에 영혼을 모시는 장소라는 의미를 비석에 내포시킨 채 연구가 진행된 것이 문제였다. 이러한 도식화(圖式化)로 인해 연구할 때 선입견이 생겨 버렸다는 말이다. 따라서 신타니 자신은 양묘제를 매장지와 비석이 따로 있다는 형태로만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메바카', '마이리바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필자도 신타니의 정의에 따라 '매장지'와 '비석(건립지)'라고 부르겠다.

다음은 필자가 조사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양묘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미하마(三浜), 세자키(瀨崎) 두 마을의 양묘제

2.1) 마을 안에서의 묘지의 위치와 부정 의식과의 관계

여기서 소개하는 사례는 미하마(三浜), 세자키(瀨崎)라는 두 마을의 양묘제이다. 이 두 마을은 교토후 마이주루시(京都府舞鶴市)에 속하며 동해에 면한다. 세자키는 1994년 현재 26가구, 미하마는 57가구였다.

이 주변 지역의 많은 마을에서 양묘제가 행해지고 있다. 최근 약 20년 사이에 화장이 많이 보급됨에 따라 비석 밑에 화장한 뼈를 납골하는 현대식 묘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도 매장하고 비석을 따로 새우는 사람도 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이행하면서 양묘제가 단묘제로 바뀌는 것이 다른 지역에도 많이 볼 수 있는 일이다.

매장지의 호칭은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두 마을에서는 '미하카'라고 불린다. 비석은 '석탑'('石塔:세키토오)이라고 불린다. 세자키에서는 매장지는 한 군데만 있다. 위치는 마을을 둘러싼 밭과 임야의 경계이고 마을 공유지이다.[2] 비석건립지도 마을 공유지이고 세 군데이다. 비석건립지는 다 밭 옆에 있고 '이에'마다 비석이 모여 세워지고 있다. 미하마의 매장지는 각 '이에'가 소유하는 임야나 밭이다(무덤으로 쓴 후에 매각한 예는 있다). 따라서 미하마 마을 주변에는 많은 매장지가 흩어져 있다. 비석건립지는 하나이고 그 땅은 마을의 공동소유지이다. 그 위치는 읍내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세자키와

2) 다만 최근에 분가한 한 '이에'만 다른 장소에 매장터와 비석건립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매장한 위에 비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5미터정도 떨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미하마의 비석건립지도 '이에' 마다 비석이 모여 배치되고 있다.

양묘제가 생긴 이유로서 시신을 부정탄 것으로 피하는 의식이 있다는 설명이 지금도 많다. 그래서 매장지는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임야에 위치시키고, 비석을 마을 내부이거나 절 옆에 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 한 사례가(森, 1993:96-7)에 소개된다. 이 마을에서는 비석은 마을 안에 있는 네 개의 절에 있고, 매장지는 마을과 옆 마을과의 경계지역에 동쪽과 서쪽에 하나씩 있다. 비석을 절에 새우는 것은 조상을 모시는 장소가 절이라는 뜻이다. 매장지가 두 개 있는 것은 마을 가운데에 있는 신사(神社) 앞을 시신이 통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신사보다 동쪽에 있는 집에서 사람이 죽으면 동쪽에 매장하고, 서쪽에서는 서쪽에 매장한다. 즉, 신사가 부정을 타는 것을 막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미하마와 세자키의 사례를 보면 그러한 설명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이 두 마을에서는 매장지는 피해야 하는 부정탄 장소가 아니라, 밭 바로 옆에 있어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간이다. '봉' 때 성묘하러 갈 적도 매장지와 비석은 구별되지 않고 다 성묘 대상이 된다. 특히 미하마에 있어서 매장지는 진정한 묘로서 오히려 비석보다 중요히 여겨져 있다. 비석에 대해서는 보통 '그냥 무덤의 표시에 불과하다' 고 표현되는 정도다.[3]

시체를 주거공간으로 멀리하는 현상은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잘 나타낸 것이 사람이 죽은 후 집 옆에 매장하는 관습이다.(高取, 1993)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781-1192) 도성(都城)인 헤이안교오(平安京)를 조성하면서, 조정은 시체를 집 옆에 매장하는 관습을 금지시켰다. 이것은 귀족들이 갖고 있던 시체에 대한 부정의 감각과 달리, 서민층 사이에는 주거공간과 매장지가 근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고고학적으로도 12세기에 집 옆에 매장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집 옆에 매장하는 관습은 명치시대까지 내려온 지역도 많았는데, 그 후 주거와 묘지를 분리시키는 정책의 영향을 받아 폐지된 사례가 많다.(森, 1993)

2.2) 비석 형태의 검토

필자는 1994년도에 미하마와 세자키 두 마을에 존재하는 비석의 비문과 형태를

3) 그렇다고 죽음의 부정이라는 관념이 이 지역에 없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미하마에서는 친척 중에 사람이 죽고 1년 안 되는 사람은 6월과 10월에 있는 '마쓰리(祭)' 즉, 신사의 신을 모시고 지르는 행사에 참석 못한다.

조사했다. 형태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협인탑(宝篋印塔), 오륜탑(五輪塔), 판비(板碑), 석감(石龕), 석감형탑파(石龕型塔婆), 불상형(佛像型), 위패형(位牌型), 각주형(角柱型)으로 나누어진다. 보협인탑/오류탑/판비 세 가지는 중세의 대표적인 형태이고 석감과 석감형탑파는 에도시대 전반의 17-18세기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 다섯 가지 형태의 비석에는 범자(梵字)는 있었으나 비문이 있는 예가 아주 드물다. 그런데 불상형/위패형/각주형의 세 가지에는 계명이나 연도 등을 적은 비문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위패형과 각주형의 비석 중에 비문이 없는 예는 없었다.

〈표 1〉 비석의 형태별 수 (단위: 기)

(단위 : 기)

	미하마	세자키		미하마	세자키
위패형	244	187	석감형 탑파	79	26
각주형	26	23	불 상 형	7	44
석 감	106	25	기 타	26	25

(竹田, 1966-8)를 중심으로 한 연구 성과에 의하면 일본에 있어서 묘지의 비석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왔다.

헤이안 시대 귀족층에서는 묘지에 돌로 불탑을 세우는 관습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불탑은 죽은 자가 극락(極樂)에 갈 수 있도록 공양을 쌓기 위해서 세운 것이었다. 그 시기의 대표적인 형태인 오륜탑(五輪塔)은 부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또 불탑에는 부처의 인인 범자(梵字)가 하나 새겨져 있다.

서민층도 비석을 만들기 시작한 시기는 무로마치(室町)시대(1336-1573) 말기로부터 에도시대 초에 걸쳐서이다(原田, 1959). 그러나 서민들에게 범자는 비석의 마크에 불과했다.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명치(明治, 1868-1912) 이후 이 범자는 가문(家紋), 즉 '이에'의 마크로 바뀌기 때문이다. 비석의 모양도 탑 모양으로부터 위패형과 각주형과 같은 측면이 팽팽한 형태로 바뀐다. 그것은 글자를 많이 새길 수 있는 형태이다. 그러한 변화들은 비석을 부처의 모습으로 보는 시각으로부터 죽은 일족·부모·조상의 모습으로 보고 계명을 많이 새기도록 바뀐 것을 나타낸다.

이상은 다케다가 진행한 마을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인데, 필자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비문에 대한 분석에서도 알 수 있다.

2.3) 비문의 검토

일본에서는 비석에는 죽은 자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때 '이름'은 생전의 이름보다 죽은 후의 이름인 '계명'(戒名, 카이묘오)이 우선된다. 계명은 고별식 전에 승이 만들어주는 것이고, 개인 단위의 납골묘나 위패 등 죽은 자의 이름은 먼저 계명을 쓰고 거기에 생전의 이름을 '속명'(俗名, 조꾸묘오)으로 병기(併記)한다.

비문 조사는 먼저 비석의 건립년을 50년마다 분류했다. 그리고 한 비석에 몇 명의 계명이 새겨져 있는가를 분류한 후, 성인남녀가 한 쌍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을 부부 한 쌍으로 간주해서 그 숫자에 따라서 분류했다. 성인과 미성년, 남녀성별은 계명의 마지막 부분인 법호'(法號: 호오고오)를 보면 알 수 있다. '童男/童女' 처럼 되어 있으면 어린이다. '信士/信女', '居士/大姉' '大禪師/大禪女' 등은 각각 성인 남녀를 가리키는 법호인데, 그 순서로 지위가 높아진다.

나아가서, 비문을 단독형/부부형/선조형 세 가지로 분류했다. 단독형은 한 명의 계명만이 비석에 새겨지는 경우, 부부형은 부부가 한 쌍만 포함된 경우, 선조형이란 복수 쌍의 부부 내지 '家'나 '先祖', '代代'와 같은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선조형이라고 정리한 비문은 모두 한 세대를 넘는 범위의 사람들을 비문에 포함시킨다는 공통점이 있다.

〈표 2〉 정면기체사항별 비서수 및 인원수

1. 미하마

1.1 비석수 (단위 기)

	단독형	부부형	선조형	기 타	합 계
1700-49	3	1	0	1	5
1750-99	7	10	0	1	18
1800-49	18	38	1	3	60
1850-99	13	40	3	7	63
1900-49	6	25	14	2	47
1950-	1	1	16	1	19
합 계	48	115	34	15	212

1.2 비석에 새겨진 인원수 (단위 명)

	단독형	부부형	선조형	기 타	합 계
1700-49	3	2	0	2	7
1750-99	6	20	0	2	28
1800-49	18	78	4	11	111
1850-99	13	92	13	16	134
1900-49	6	62	47	4	119
1950-	1	2	83	0	86
합 계	47	256	147	35	485

2. 세자키

2.1 비석수 (단위 기)

	단독형	부부형	선조형	기 타	합 계
1650-99	1	0	0	0	1
1700-49	0	4	0	0	4
1750-99	8	24	0	6	38
1800-49	15	34	0	1	50
1850-99	19	30	0	3	52
1900-49	7	14	1	1	23
1950-	0	2	15	0	17
합 계	50	108	16	11	185

1.2 비석에 새겨진 인원수 (단위 명)

	단독형	부부형	선조형	기 타	합 계
1650-99	1	0	0	0	1
1700-49	0	8	0	0	8
1750-99	8	49	0	13	70
1800-49	15	75	0	3	93
1850-99	19	71	0	7	97
1900-49	7	31	0	6	44
1950-	0	4	40	11	55
합 계	50	238	40	40	368

미하마에서 조사한 비석 488개 중에는 212개에 연도가 새겨져 있다. 그 중 가장 오래된 비석은 1708년이다. 한편 세자키의 경우 배석 330개 중에 183개에 연도가 기록되어 있고, 가장 오래된 것은 1672년이다. 두 개 마을 모두 18세기의 연도가 기록된 비석은 많지 않다. 그러나 19세기 전반에 그러한 비석이 증가한다. 그것은 위에서 말한 위패형 비석이 일반화한 시기이기도 한다.

비문이 생기기 시작한 18세기에는 단독형이 많다. 그 후 에도시대 후기에는 부부형이 중심이 된다. 현재 20세기 후반은 거의 모두 선조형 비석뿐이다. 이상의 현상도 두 마을에 공통하다. 즉, 비석 하나에 새겨지는 인원수, 부부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부부형으로부터 선조형으로의 전환기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는 두 마을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일반적인 묘는 화장을 한 다음에 '이에'를 단위로 한 비석 밑에 납골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납골묘는 일본이 근대국가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나타난 형식이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근대적인 법체제를 정비하면서도 역시 에도시대와 같이 '이에'의 영속을 사회의 기본으로 삼았다. 호적을 '이에'단위로 만들고 호주제를 도입하면서 사람들을 관리한 것이다. 그것에 따라 명치시대 이후 묘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에'와 관련되었다. 명치민법에서 분묘나 제구 등은 '이에' 계승자인 호주가 특권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묘는 조상숭배를 위한 재산으로 특별한 위치를 자리 잡게 되었다. 묘의 형태도 '이에 하카'(家墓) 즉, '이에'를 단위로 하고 화장한 뼈를 납골하는 현재의 형태가 일반화된다. '이에 하카'의 보급에는 묘가 법적으로도 '이에'를 상징하는 재산으로 간주된

것. 세금이 면제된 묘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규제, 화장의 보급 등 여러 요인으로 생긴 현상이다.(森, 1993:149-151, 181-185)

그러나 세자키나 마하마의 사례를 봐도 이러한 변천과정이 일본 전국에서 고스란히 진행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마을은 농어촌 지역이라 묘지가 부족하지 않았다. 그 결과 화장의 보급이 굉장히 늦어진 결과 '이에 하카'(위의 비문 분류로 말하면 '선조형'의 비석을 지닌 화장납골묘)의 도입도 특히 세자키에서 늦어졌다.

그러나 미하마에는 19세기후반에 복수의 부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의 계명을 새긴 비석이 증가한다. 20세기에 들어서서는 부부 복수 쌍을 기록하고 그 가운데에 '…家先祖代代'와 같은 문언을 새긴 비석도 생긴다. 다음은 그 예이다.

〈비석 정면〉 壽叡道綱居士
斯願妙要大姉
壽保妙鶴大姉
先祖代代各靈位
方便良朔居士
槐岩榮大姉

계명을 많이 새긴 비석은 크기도 크고, 또 그러한 비석을 세운 집은 어업 등으로 성공한 집안이 많다. 미하마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어업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미하마에 선조형 비석이 일찍 나타난 이유로서 우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것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어업을 많이 하지 않았던 세자키는 그 시기까지는 별로 성공한 산업이 없었다. 1950년대에 감귤 재배로 인하여 수입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시기에는 이미 선조형 비석이 일본 전국에서 일반화되어 나가는 시기이고 그것을 받아드린 것 같다.

미하마에서 선조형 비석이 나타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마을에서는 매장지와 비석이 사회적으로 대립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미하마에서는 매장지와 비석이 다 성묘 대상이 되는데, 그 때 매장지는 그 자리에 매장된 특정 인물의 묘로, 비석은 한 '이에' 선조 전체의 묘로 간주된다. 매장지는 개개인 마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정한 인물의 묘가 되고, 비석은 계명이 쓰여져 있어도 그 계명이 누구를 가리킨 이름인지 아는 사람이 없으니 '이에' 선조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미하마에서는 세자키와 달리 화장이 아닌 매장을 하는 시기부터 선조형 비석이 세워지는데, 매장지와 비석 사이에 위와 같은 대립이 있어서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된다.[4]

5. 한일간 장묘문화의 차이

현재 일본 장묘문화가 형성되기까지 역사적인 여러 변천이 있었다. 그러나 지역이나 계층, 종파에 따라 그 과정은 일정하지 않고, 그 결과 일본의 장묘문화는 다양해졌다. 사단(寺檀) 제도는 '이에'를 단위로 하면서도, 한 '이에' 내부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다니는 절이 따로 있는 지역도 많다.(森, 1993:207-212) 죽은 자의 명목을 빌기 위해서 탑을 세워서 부처님에게 바치는 관습이 귀족층부터 서민층에게 보급되면서 단묘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양묘제가 될 수도 있었다. 양묘제를 하는 이웃동네인 세자키와 미하마 사이에도 비문의 변화 과정에 차이가 있다. '일본의 장묘문화는 이러이러하다'고 한 마디로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된다.

그러나 한국의 장묘문화와 비교해 볼 때, 일본 각지의 장묘문화에도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일본과 한국의 장묘문화를 비교할 때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이 화장과 매장이라는 특징인 것 같다. 그러나 일본의 장묘문화가 불교에 따라 행해진다는 점과 시간이 지나갈수록 선조들이 개성을 상실한다는 점은 보다 큰 차이라고 보아야 한다.

일본에서는 죽은 후 시간이 지나갈수록 선조들이 개개인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하고 추상적이고 집합적인 '이에'의 선조로서 취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비석을 세우는 시기는 죽은 직후보다 10년 이상 지난 연기법요나 33년째의 '도무라이 아게' 때라는 지역이 많이 있다.

미하마에서 매장지는 개개인의 묘로, 비석은 '이에' 선조의 묘로 간주된다고 했다. 그런데, 한 집안의 사례에서는 4세대 이상 올라가면 매장지에 가도 어느 묘가 누구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역으로, 요즈음 생긴 화장납골묘에 '…家之墓'라

4) 물론 현재 성묘 관습이 150년 전에도 같은 모습으로 있었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 부모, 조부모 세대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

는 비문이 있어도, 사람들이 그 묘에 가서 거기에 납골된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묘하는 사례도 있다. 결국 죽은 자는 애초에는 한 개인으로 인식됐다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한 집안의 선조'라는 범주 속에 들어가 그 개성을 상실하게 된다.(オームス, 1987)

이러한 선조의 모습은 한국 조상숭배의 조상의 모습과 매우 다르다. 한국에서는 가승이나 족보를 통해서 조상들의 이름이나 경력, 묘의 위치 등을 남기는 노력을 한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가 시조나 입향조로부터 몇 대째이고 이 지역에 들어온 지 몇 년 정도 되었는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그것은 일본에서는 귀족이나 지방 영주의 후손 등 아주 특별한 집안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6. 맺음말

매장으로부터 화장으로의 전환도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 보다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본다. 즉, 필자는 화장납골묘의 보급에는 죽은 자들이 사간이 지나면서 '이에의 선조'로서 보다 윗 세대의 선조들과 동화(同化)한다는 관념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현재 가족 납골묘가 일반화된 원인으로서 여러 요인이 있는데, 정부의 정책이나 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인한 묘지의 부족, 위생관념의 발달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화장이 보급시키는 조건이기는 하나 화장이 순조롭게 수용(受容)되는 이유로서는 불충분하다. 위생관념의 보급이나 발달은 여러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화장을 수용하지 않는 사회도 있다.

그래서 화장을 수용시킨 다른 요인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 화장에 의해서 주검을 유골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되었다. 다시 말해서 부정을 탄 주검을 불에 타서 신속히 정화(淨化)된 유골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근대에 와서 유골을 존중하는 관념이 널리 정착되었다. 화장 후 유골을 유족들이 같이 모으는 관습은 에도시대부터 화장을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화장이 많이 행해지는 유럽이나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일본에 독특한 관습이다. 모리(森謙二)는 유족들이 같이 유골을 모으는 것을 통해서 주검의 부정에 대한 두려움보다 죽은 자에 대한

추모(追慕)의 마음이 더 강조되었다고 한다.(森, 1999:142-144)

필자는 이러한 요인들과 더불어 죽은 자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도 납골묘와 친화적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화장한 유골을 한 납골묘에 같이 모시고 같이 예배하는 형식은 죽은 자가 개개인으로 취급받지 않고 '이에의 선조'가 되는 관념이 있어서 보다 쉽게 받아들여진게 아닌가 생각한다.[5]

위와 같은 필자의 생각을 방증(傍證)해주는 것은 최근의 새로운 장묘문화의 등장이다.

일본 장묘문화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시 흔들리고 있다. 특히 출생률이 저하하면서 '이에'를 상속하는 사람이 없어져서 자기 묘가 무연분묘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자기가 결혼해서 소속한 '이에'(이른바 시집)의 묘를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 중요한 움직임이다. 그래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공동납골당에 등록하거나 화장한 채를 바다나 산에 뿌리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80년대 후반 이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森, 1993:231-247) 이러한 현상은 묘를 죽은 후의 자기 주거라고 보고 자기가 원하는 형식의 묘를 만들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남을 나타낸다. 현재 일반적인 납골묘는 같이 납골하는 단위로서 '이에'가 있는데, 그러한 '이에'에 대한 귀속의식이 흔들리면서 '이에'의 선조로서 같이 취급받기를 거부하고 죽은 후의 대처 방법도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장묘문화는 제일 변화 속도가 느린 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사회 구성원이었던 죽은 자와 현재 구성원인 산 자의 관계는 사회 성립의 기초에 있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는 것을 일본 장묘문화의 변화와 다양성은 보여준다.

---

5) 『제민일보』 2002년 11월 10일자에는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탐라문화연구소 심포지엄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거기서는 "일본 경도대학 다카무라 료헤이 교수는 … "한국과 일본의 장묘문화 차이는 '매장'과 '화장'이다"고 강조. "매장문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선조들의 개성을 상실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화장으로의 전환은 좀 더 수월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고 소개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그 날 그러한 주장을 했다는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밝힌다(그리고 필자는 경도대 교수가 아니라 박사과정 대학원생이다). 본 논문을 보아도 알다시피 필자는 화장과 매장이라는 형태보다 그러한 형태가 내포하는 문화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죽은 자가 개개인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한다는 관념은 매장묘보다 화장납골묘에 더 친화적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原田敏明, "兩墓制の問題", 1959, 『社會と傳承』, 3-3

森謙二, 『墓と葬送の社會史』, 1993, 講談社.

森謙二, "葬送と社會 集團", 新谷편 1999, pp.126-153

森岡清美, 『眞宗教團と '家' 制度 增補版』, 1978, 創文社,

オームス ヘルマン, 『祖先崇拜のシンボリズム』, 1987, 弘文堂.

新谷尙紀, 『兩墓制と他界觀』, 1991, 吉川弘文館.

新谷尙紀 편, 『死後の環境』, 1999, 昭和堂.

高取正男, 『神道の成立』, 1993, 平凡社.

竹田聽州, "兩墓制村落における詣墓の年輪 (1)-(2)", 1966-8, 『佛教大學研究紀要』, pp.49-52

坪井洋文 "葬式", 大島建彦 외 편, 『日本を知る事典』, 1971, 社會思想社, pp..28-35

葬送文化研究會 편, 『葬送文化論』, 1993, 古今書院.

山本ちず, 『葬送狂騷曲』, 1999-2001, http://www4.big.or.jp/~chizu/soushiki/index.-html

최열, "장묘문화개선과 환경운동",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 2001,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